



Photo | 김재광 목사(교육총괄)

매일묵상
2022. 12월호

발행인 | 차동혁
집필/편집 | 교역자실
진행 | 신앙운동팀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2022년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2월

그라티아 갤러리



김지혜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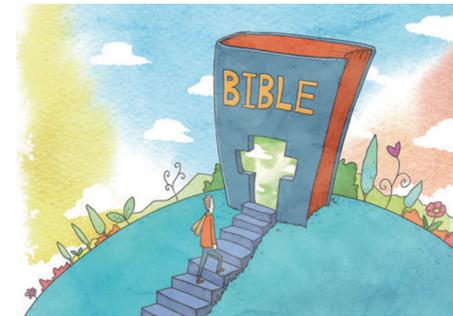
2004년 석수시장 아트 프로젝트 참여
2005년 파이널 아트전 참여
그 외 그룹전 다수 참여

[Midnight]

문득 어린 날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꿈에 나온 유니콘은 세상의 모든 빛을 가진 듯 아름다웠고, 손을 뻗으면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환상 같았습니다. 더불어 그리움과 반가움이 교차했습니다. 그 시절 꿈에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던 그리움은 추억 속에 바래지기에 천천히 흐릿하게 그리고 더듬더듬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 12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김지혜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히브리서 7-13장, 요엘1-3장, 아모스 1-9장,
요나 1-4장, 미가 1-7장, 나훔 1-3장, 하박국 1-3장,
스바냐 1-3장, 요한계시록 1-22장

목차

기도를 배우다	03
12월 달력	04
12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매일묵상, '위드유'가정예배	14, 32, 40, 52, 72, 86
요엘 해설	18
아모스 해설	22
요나 해설	34
미가 해설	40
나훔 해설	48
하박국 해설	54
스바냐 해설	58
요한계시록 해설	62
교회소식	
예배안내	
부록	
- 요나와 큰 물고기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 김지혜 작가의 [Midnight]

기도를 배우다

대림절
지금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들 말합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다시'라는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이라는 말로 오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거처로 정하신 인간의 실존을 주님은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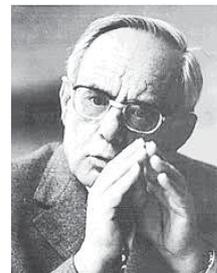
그러나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주님이 이미 저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끊임없이 드러나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이 당신의 존재에 맞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변화가 더욱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더욱더 오셔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저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모습이 더욱더 철저히 뿌리뽑히고 파괴되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당신께서 유한한 생명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당신의 영원을 입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오십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오심은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하나의 강림절, 이 계절에 주님이 진실로 오셨음을 저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 지금, 강림의 한 때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영원히 당신 안에, 그 복된 영원한 때를 살게 하소서.

김영봉 엮음, [사림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597.



칼 라너
(1904-1984 독일의 신학자)

독일 프라이부르크 출생으로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대학 교수직을 거쳐 뮌헨대학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했고, 그의 시대 교회일치운동에 힘썼으며, 독일 신학교육의 개혁을 주창했던 개혁적 신학자이다.

12

2022
영광의 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2	3
4 • 부친아가페합창단 초청 찬양예배	5	6	7 • M-12/L-12 하반기 종강 및 자율모임 시작	8	9	10
11 • 향촌직은퇴예식	12	13	14	15	16	17
18 • 교회학교진급식 성탄축하발표회	19	20	21	22	23	24
25 • 성탄절예배 유아세례식	26	27	28	29	30	31 • 송구영신예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2023
비전의 달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을 2:28)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신년감사주일 성찬식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여전도회주일	16	17	18	19	20	21
22 • 신입교사훈련	23	24	25	26	27	28
29 • 신입교사훈련	30	31				

TO DO LIS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월 [오늘의 말씀]

1일	히브리서 7-8장	16일	미가 6-7장
2일	히브리서 9-10장	17일	나훔 1-3장
3일	히브리서 11장	18일	주일
4일	주일	19일	하박국 1-3장
5일	히브리서 12-13장	20일	스바냐 1-3장
6일	요엘 1-3장	21일	요한계시록 1-2장
7일	아모스 1-2장	22일	요한계시록 3-4장
8일	아모스 3-4장	23일	요한계시록 5-6장
9일	아모스 5-6장	24일	요한계시록 7-8장
10일	아모스 7-9장	25일	주일
11일	주일	26일	요한계시록 9-10장
12일	요나 1-2장	27일	요한계시록 11-12장
13일	요나 3-4장	28일	요한계시록 13-14장
14일	미가 1-2장	29일	요한계시록 15-17장
15일	미가 3-5장	30일	요한계시록 18-19장
		31일	요한계시록 20-22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다윗과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 ww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옛 언약, 새 언약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7장
*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7-8장

묵상할 본문 | 히 8:8-13

⁸내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⁹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¹⁰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ی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¹¹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라 ¹²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¹³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악행들을 완전히 용서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합니다.’ 옛 언약, 구약은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들로 돌 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옛 언약(율법)에 얽매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던 적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옛 언약인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소서.
2. 차량부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덥고 추운날 일선에서 수고하는 차량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3.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하소서.

단번에 드리진 제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5장
 *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9-10장

묵상할 본문 | 히 9:23-28

²³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²⁴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²⁵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²⁶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²⁷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²⁸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묵상 가이드

구약의 옛 언약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셨고,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를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구원의 속죄였습니다.

옛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비우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나 숭고하며 거룩한 그 은혜는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새로운 언약의 은혜입니다. 옛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위한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있는지 생각하며 나누어 봅시다.

*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낸 적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에서의 자유'에 대하여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소서.
2. 총무부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총무부원들을 축복하소서.
3.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고 복음만을 자랑하는 고척교회로 세워 주소서.

오직 믿음으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4장
*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묵상할 본문 | 히브리서 11:1-6

¹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²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³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⁴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⁵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⁶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묵상 가이드

우리 사회에서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증명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개념을 고집스럽게 고수한다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믿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실재적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반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고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보다 먼저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천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런 믿음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정하여 말씀을 찾아보고 그 삶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느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2. 예배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름답게 올려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3.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찬 양

찬송가 455장

말 씬

마태복음 6장 1-8절

나누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 하라고 말씀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하기 쉽고 상처 받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자신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자기 상을 이미 받았지만 은밀함 가운데 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질 문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힘들어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 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한주 동안 가족이 서로 모르게 좋은 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그리고 한주 후 어떤 일을 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암 송 구 절

마태복음 6: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4장
*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13장

묵상할 본문 | 히 12:1-3

¹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²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³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묵상 가이드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에 임할 때에는 먼저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무겁고 거리끼는 것은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려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름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2.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고의 헌신을 다하게 하소서.
3.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소서.

1. 저자와 연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브두엘의 아들 요엘”의 책입니다. 그러나 요엘에 대해서는 그 자신과 아버지의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부친의 이름인 ‘브두엘’의 뜻이 ‘하나님의 성실’이며 ‘요엘’의 이름 뜻이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점에서 그가 경건한 가문 출신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엘의 저작 연대는 주전 9세기에서 4세기까지 폭넓게 추정되는데 남유다 왕 요아스의 재위기간 중으로(주전 835-796년), 또 하나는 느헤미야 종교개혁 이후로(주전 432년경) 추정됩니다.

2. 목적과 배경

요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국가적 재난의 때에 애곡하며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 위기는 우선 포도주(1:5, 7, 12)와 곡식(1:10)을 모두 파괴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시작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 보면 요엘서는 다른 국가적 비극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속되는 삶 속에서 애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내용과 구조

유다에 임한 재앙은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며 이것은 ‘여호와와 날’에 대한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날이 임하기 전에 백성은 회개하되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엘서의 핵심단어 - 여호와와 날

하나님의 범죄한 남유다를 향하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요 단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와 날’입니다. 요엘서는 일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준엄한 최후 심판의 날에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전반부(1장~2장 17절)

요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회개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메뚜기와 군대의 침입으로 여호와와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합니다.

2) 후반부(2장 18절~3장)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보여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이스라엘은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요엘, Michelangelo Buonarroti, Joel, 1509, Fresco, 355x380cm

이제라도 돌아오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32장

* 오늘의 말씀: 요엘 1-3장

묵상할 본문 | 요 2:12-14

¹²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¹³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¹⁴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묵상 가이드

우리에게 아직까지 호흡이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행복의 삶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주저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는 형식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탄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공함이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과 친밀한 사귀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회개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여주시기를 간구하며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여주소서.
2.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시온찬양대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영광이 선포되게 하소서.
3.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1. 저자

아모스는 BC 8세기 선지자들 중 가장 먼저 예언한 문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의 고향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18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소개합니다(7:14). 그는 남 유다 출신이면서 북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북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2. 기록 연대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는 ‘지진 전 2년’(1:1)인데, 이 지진은 당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참조, 슥14:5). 이 지진은 BC 760년경 일어난 것으로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앗수르나 애굽의 침략이 뜸했던 시기로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웃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 북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최상의 상태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3. 구성

아모스서는 전체적으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선포(1:1-2:16),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포(3:1-6:14), 다섯 가지 환상들(7:1-9:1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메뚜기 재앙을 통한 수확물의 소멸(7:1-3), 두 번째 환상: 지하수와 농경지를 말려 버린 불(7:4-6), 세 번째 환상: 여호와와 손에 있는 다림줄(7:7-8),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8:1-2), 다섯 번째 환상: 재단 곁에서 계신 여호와(9:1-4).

특히 두 번째 환상에서 심판 철회를 거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

니”(7:8). 네 번째 환상에서는 끝이 선포됩니다(8:2).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는 심판의 불가피성이 강조됩니다(9:1-4).

4. 주제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정의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5:4).

언약의 삶에 대한 요청은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요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요청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일을 떠올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윤리 의식의 강조는 거짓 예배에 대한 비판을 공유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5:21). 이러한 아모스의 요청은 호세아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

특히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심판의 선고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를 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실 뿐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부르짖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0장

* 오늘의 말씀: 아모스 1-2장

묵상할 본문 | 암 1:1-3

¹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²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³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묵상 가이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치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웃시아 시대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비록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비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들의 외식과 가식된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악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부르짖음’(2절)으로 애통해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 다메섹의 죄악부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는 왕족 출신이나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드고아 목자였던 아모스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 비범한 삶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발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죄악에 대해 애통해 하시는 ‘여호와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마음과 귀를 열어 주소서.
2. 가브리엘 찬양대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3.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핵위협과 열강의 이권다툼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언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6장
* 오늘의 말씀: 아모스 3-4장

묵상할 본문 | 암 3:7-8

⁷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⁸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묵상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주께서 품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언자적 목소리를 담대하게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실로암 찬양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3. 한국교회를 오염시키는 이단들의 비(非)진리와 불의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미혹 받은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52장
* 오늘의 말씀: 아모스 5-6장

묵상할 본문 | 암 5:21-24

²¹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²²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²³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²⁴오직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내는 모습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런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예배를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속마음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곳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특별히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 오직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2. 주일 2부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3. 주변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고척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적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9장

* 오늘의 말씀: 아모스 7-9장

묵상할 본문 | 암 8:11-14

¹¹주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¹²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¹³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¹⁴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근은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마실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당하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기근은 그들의 우상숭배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미련 없이 버려버립시다.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으로 모든 영적 기근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적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헛된 우상을 모두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2. 주일 3부 찬양팀의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회복된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그치게 하시고 극심한 환경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찬 양

찬송가 280장

말 씬

마태복음 9장 9-13절

나 누 기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며 힘겹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병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질 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 도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예수님께 고백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암 송 구 절

마태복음 9: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1. 저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주전 786-746년) 때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사렛 북동쪽의 가드 헤벨 출신이었습니다(왕하14:25). 열왕기하에 따르면 그는 북왕국의 영토가 확장될 것을 예언하였으며, 이 일은 실제 여로보암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와 니느웨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마12:39-40, 눅11:29-30)은 이 책의 역사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 구조와 내용

1) 도망치는 요나(1:1-17)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 풍랑을 만난 선원들은 제비가 뽑힌 요나에게 재앙의 원인을 묻습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밝히고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다시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삼 일을 보내게 됩니다.

2) 요나의 기도(2:1-10)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곤경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나의 감사는 그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 이스라엘을 넘어 니느웨까지는 결코 확장되지 못하였습니다.

3) 니느웨의 회개(3:1-10)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니느웨를 향해 사흘 동안 걸어갑니다.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루 만에 회개합니다. 포악한 니느웨 왕이 앞장서서 금식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려 온 백성에게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십니다.

4) 분노하는 요나(4:1-11)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지켜본 요나는 분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며 그에게 친히 박녕쿨을 들어서 교훈하십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녕쿨로 인하여 기뻐하였지만 이튿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박녕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녕쿨이 사라지자 요나는 또 다시 화를 내며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녕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 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까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며 요나서는 마무리 됩니다.

3. 주제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협소한 민족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둘째, 요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선명히 드러냅니다. 셋째, 요나서는 선지자적 사명을 맡은 자를 끝까지 사용하 마침내 당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부각시킵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심판에 직면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72장

* 오늘의 말씀: 요나 1-2장

묵상할 본문 | 온 2:1-10

¹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²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³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⁴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⁵물이 나를 영혼까지 돌렸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⁶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⁷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⁸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⁹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¹⁰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묵상 가이드

거친 풍랑속으로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깊은 절망의 늪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빛이 전혀 없는 좁은 공간, 죽음의 냄새가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냅니다. 비탄과 절망의 시간, 그 밑바닥의 현장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나는 주께서 자신을 쫓아내셔서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돌렸고, 깊음이 자신을 에워쌌으며, 바다의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쌌으며, 지금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겪은 고난과 회개를 보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해 주시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과 회개의 자리가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현재 나는 요나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모습은 없습니까?

* 최근에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애통함을 회복하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기도

1.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2. 주일오후찬양팀의 찬양으로 찬양예배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름부어 주시고, 팀원들의 일상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소서.
3. 고척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분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5장

* 오늘의 말씀: 요나 3-4장

묵상할 본문 | 온 4:9-11

⁹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녕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¹⁰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녕쿨을 아꼈거든 ¹¹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묵상 가이드

박녕쿨이 자기를 시원하게 할 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하며 만족해하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단 하루 만에 박녕쿨을 시들게 하시자 차라리 죽어 달라며 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녕쿨을 위해 요나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박녕쿨의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시들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가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단 한 번도 수고한 일이 없는 박녕쿨에 대하여도 그가 그렇게 아끼며 사랑했다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어린이들)가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불평하는 나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지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요나처럼 하나님께 섭섭해 하고 원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 요나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1.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수요일전찬양팀의 찬양으로 수요일전기도회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쁨 부어 주시고, 팀원들의 일상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소서.
3. 전세계 선교지마다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후원과 기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꾸준히 보살펴 주소서.

1. 제목

히브리어 성경을 비롯한 모든 역본들은 본서의 저자인 미가의 이름을 따서 본서를 '미가'로 부른다.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이다.

2. 저자

본서의 저자는 미가로 본다. 이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서가 밝히고 있고(1:1), 본서를 미가의 작품으로 보는 전통에 따른 것이다. 비록 비평학자들 사이에 1-3장과 4-7장은 서로 일관성이 없고 문체가 달라 후반부는 익명의 저자에 의한 작품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반론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면 ① 매장 초두에 시작되는 '들을지어다'(1:2; 3:1; 6:1)는 반복된 표현이나 ② 저자의 설교가 일관되게 자문자답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2:5, 12; 3:1; 6:6-8; 7:14)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일관성과 통일성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서는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 저자는 미가로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3. 기록시기

본서는 미가 선지자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였다고 기술한다(1:1). 이런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렘 26:18-19). 또 본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함락(1:6-7, B.C. 722년), 앗수르의 블레셋 침공(1:10-16, B.C. 715-711년) 사건이 언급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 위협당한 내용도 나타나는데(1:9) 이는 아마 히스기야 14년(B.C. 714년경)에 앗수르 왕 산헤립에 의한 유다 침공을 말할 것이다(왕하 18:13). 이렇게 볼 때 본서는 대략 B.C. 700년 전후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4. 기록장소

선지자의 고향인 유다 땅 모레셋으로 보인다(1:1, 4; 렘 26:18). 이곳은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 블레셋 접경에 위치한 시골인데, '가드모레셋'으로도 불린다.

5. 미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본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6:8 말씀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6:8).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난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불의와 불법이 성행했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종교적 타락의 결과였다.

그래서 선지자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불의를 저지르는 지도층에게는 공의의 법을 선포하고, 피차 반목하고 질시하는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호소하였다. 동시에 선지자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구원을 상기시켰다. 더욱이 이 구원이 메시아로 인한 영원한 구원이라면(5:2)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 지는 자명하지 않겠는가?

6. 미가서의 배경과 무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앗수르의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등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또 그 후계자 산헤립은 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유다 왕 아하스는 친 앗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앗수르의 우상을 들여와 신앙적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였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며 신앙 회복을 선언하였지만 반대로 앗수르의 군사적 위협 아래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사역을 수행하였다.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2장

* 오늘의 말씀: 미가 1-2장

묵상할 본문 | 미 2:1-5

¹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²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³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⁴그 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고도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⁵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묵상 가이드

미가는 자신의 권력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자행하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미가는 침상에 들면 온갖 못된 짓을 꾸며다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지난밤에 침상에서 계획한 대로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으로 못된 짓을 해치우고 마는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탐나는 밭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그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웃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탐욕으로 가득찬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여, 사람을 경시하고 욕심에 찬 모습은 없는지 묵상해 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탐심에 빠져서 편법과 탈법을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뉴스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2. 수요일후찬양팀 인도자와 싱어와 세션에게 찬양의 은사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수요일후기도회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소서.
3.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임광택, 홍재현 선교사님 교회와 신학교, 가정을 보호하여 주소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7장
* 오늘의 말씀: 미가 3-5장

묵상할 본문 | 미 5:2-6

²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³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⁴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⁵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⁶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묵상 가이드

미가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땅에 오셔서 참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미가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 중에 있어야 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들레헴 작은 고읍 마굿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며 섬겨주셨던 예수님이 현재 내 삶에 요청하시는 낮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내가 내려놓아야 할 교만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내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과 내게 주신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님은 ‘편안한 삶’이 아닌 ‘평강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재 내 삶에서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합니다.

오늘의 기도

1. 교만한 내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도록 변화시켜 주소서.
2. 금요성령집회 찬양팀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금요성령집회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소서.
3.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줄 수 있도록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18장

* 오늘의 말씀: 미가 6-7장

묵상할 본문 | 미 6:6-8

⁶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⁷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
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⁸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
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
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묵상 가이드

권력과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저주
를 받는 것도 부담이 되니 꼼수를 부립니다. 어떻게 죄의 즐거움은 그대로 누리고 하
나님의 저주도 피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구약의 레위
기 법전에서 말하는 대로 일 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바치면 혹시 내가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죄가
크니 그것으로 안 된다면, 솔로몬처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
칠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와 감사가 담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공의와 사랑과
겸손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신령
한 모습들입니다. 내 안에 참된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현재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짓게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숨은 동기가 무
엇입니까? “죄를 더 짓고 싶고, 회개하고 변화되길 원하지 않는 속마음”을 인정하
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의 쾌락이 아닌 성령의 기
쁨’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얼마나 있습니까? ‘미가 6
장 8절’ 찬양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반복해서 따라 부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
음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의 기도

1.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
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2. 비파와 수금 기악팀의 연주와 특송을 귀히 받아주시고, 팀원으로 활동하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3. 이 땅에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들이 줄어들도록 법제와 사회문화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소서.

1. 제목

히브리어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들은 본서 저자인 나훔의 이름을 따서 본서를 '나훔'으로 부른다. '나훔'이란 이름은 '위로자', '위로'란 뜻이다.

2. 저자

본서 저자를 나훔으로 보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다. 본서에는 엘고스 사람 나훔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1:1). 그러나 나훔에 대해서는 고향 이외에 달리 알려진 것이 없다. 그나마 엘고스 역시도 위치가 정확치 않다.

3. 기록시기

본서에는 니느웨의 멸망(B.C. 612년)이 선포되고 있다(1:1). 또 애굽의 고도(古都) 노아몬(테베)의 함락도 예언되고 있다(3:8-10). 역사적으로 테베는 앗수르 왕 앗술 바니팔에 의해 함락당하였다(B.C. 663년). 이렇게 볼 때 본서는 넓게 보아 B.C. 663-612년경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테베가 함락 후 10년 뒤에 다시 재건되었는데 본서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보아 본서는 B.C. 663-65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때 유다에서는 므낫세 왕(B.C. 697-642년)이 통치하고 있었다.

4. 기록장소

나훔 선지자의 고향인 엘고스로 본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까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반면 나훔 선지자는 유다에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였다.

5.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1:2). 이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훔의 첫 번째 선언이다.

선지자는 메시지 초두부터 니느웨의 멸망을 강하게 선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이다. 1세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싫어 도망치는 선지

자 요나를 온갖 이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니느웨로 보내셨다.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동원하고, 물고기에 먹히게 하고, 물고기가 선지자를 육지에 토하게 하는 등등(은 1-2장), 이런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다. 이렇게 하여 심판을 면케 하신 니느웨인데, 이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시켜 멸망을 선포하신다.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겠는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1:2).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모독(褻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입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마 12:31). 이런 사실을 본서 가운데서 명확하게 배운다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당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6. 나훔서의 배경과 무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앗수르는 앗술 바니팔(B.C. 669-626년)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그는 동쪽으로 페르시아만, 서쪽으로 소아시아, 남쪽으로 애굽, 북쪽으로 카스피 해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던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좇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나훔의 경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고 앗수르 제국은 멸망하였다(B.C. 612년).



니느웨성의 멸망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52장

* 오늘의 말씀: 나훔 1-3장

묵상할 본문 | 나 1:1-7

¹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²확확 하는 채찍 소리, 웅웅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³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떼,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⁴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⁵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⁶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 거리가 되게 하리니 ⁷그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 앗수르(니느웨)를 향하여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를 점령하며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이들은 잔인한 정복자로서 주변 점령국에 공포와 전제정치로 다스렸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심판이 앗수르의 도성 니느웨로 다가오는 소리를 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확확 하는 채찍 소리, 웅웅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과 달리는 병거들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나눔서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앗수르를 갑작스럽게 멸망시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교만한 앗수르와 같은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한 개인의 역사에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내 주위에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은 교만하여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진 나라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땅에 교만과 죄악된 문화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교만하여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교만이 꺾이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소서.
2. 주일1부 예배에 특송을 맡은 '아가페남성코랄', '맑은샘중창단', '권사중창단', '비파와수금'을 축복하시고, 찬양팀마다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소서.
3. 한반도에 전쟁의 야욕은 그쳐지고 복음안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타락과 향락의 문화들이 사랑과 공의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작은 자를 찾는 하나님

찬 양

찬송가 212장

말 씬

마태복음 18장 12-14절

나누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크던 작던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 잃은 한마리 양을 찾으시며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작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겸손히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 문

작다고 무시 당했거나 반대로 무시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 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가족끼리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말로 한 주 동안 서로를 축복해주세요.

암 송 구 절

마태복음 18: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하박국 해설

1. 제목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는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하박국'이며 그 이름의 뜻은 '폼다' '포옹하다' '꼭 붙잡다'입니다.

2. 선지자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라는 뜻으로(1:1:3:1)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적 의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시대적 배경

하박국은 앗수르 제국의 쇠퇴와 신바벨론 시대의 개막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주전 722년) 이후 홀로 남은 유다의 요시아 왕정의 후반기부터 여호아하스를 거쳐 여호야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동시대 선지자로는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이 있습니다.

4. 신학적 특징

하박국 선지자의 의구심과 질문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정당하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며 믿음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순복하며, 어떤 상황이 눈앞에 벌어져도 신실함으로 살면서(합2:4)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합 3:17-19).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과 패역 혹은 바벨론의 악과 패역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이를 다 살피시며 어떻게 하실지 걱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박국에게 혼란과 모순으로 다가왔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됩니다.

5. 하박국 개요

I. 문제: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1:1-17

1.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박국의 불평 1:1-4
2. 유다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1:5-11
3.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박국의 항의 1:12-17

II. 해결: 하나님의 계획의 지혜와 성공에 대한 확신 2:1-20

1. 하박국이 대답을 구함 2:1
2.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의 지혜와 성공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권하심 2:2-4, 20
3.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국가적 죄들을 열거하심 2:5-19

III. 하박국의 응답 3:1-19

1. 하나님의 행동과 자비를 위한 중재 3:1, 2
2.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상 3:3-16
3.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신앙 고백 3:17-19

6. 하박국 시대 지도



믿음으로 살리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5장

* 오늘의 말씀: 하박국 1-3장

묵상할 본문 | 합 2:1-4

¹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²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 ³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⁴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묵상 가이드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하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때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져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의인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득세 속에서 심판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을 여전히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행복사역부가 행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행복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소서.
- 세계열방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슬픈 마음이 있고, 소외되고, 상처 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소서.

1. 제목

스바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를 환난 중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2. 선지자 스바냐

스바냐에 관한 사항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왕족의 후손인 듯한 그는 니느웨의 함락과 바벨론의 유다 침략 사이의 기간인 요시아왕의 재위 기간(주전 640-609년)중에 예언 활동했습니다.

3. 시대적 배경

스바냐는 경건한 왕 요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이 때는 신앙의 큰 '부흥'이 일던 시대였습니다(왕하 22-23장). 요시아는 8세에 보좌에 올랐으며 16세에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했습니다. 20세 때에는 그 땅에 큰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우상을 헐고 거짓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성전을 재건하여 그 민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크게 지키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표면보다 더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으며, 그들의 신앙적인 열성이 진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은 가정에서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불순종하였으며 예루살렘성은 온갖 사악함의 근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4. 신학적 특징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이나 아모스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축복의 날'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먼저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 형태입니다.

심판은 유다에서 시작되어 유다 땅은 황폐케 되고 결국 모든 열방에까지 번지며 그 엄위와 능력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은 그 날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5. 스바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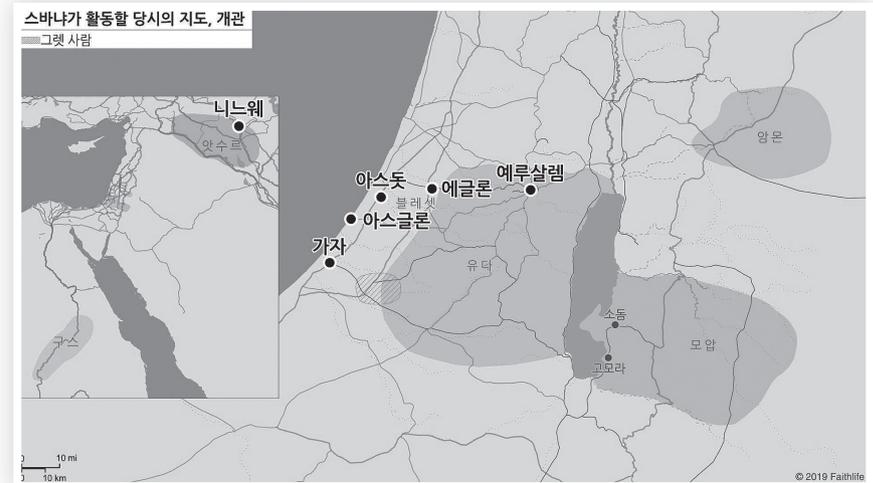
I. 유다에 대한 예언(1:2-2:3)

II. 열방에 대한 예언(2:4-3:7)

1. 블레셋(2:4-7)
2. 모압과 암몬(2:8-11)
3. 구스(2:12)
4. 앓수르(2:13-15)
5. 예루살렘 및 유다(3:1-7)

III. 구원에 대한 예언(3:8-20)

6. 스바냐 시대 지도



기뻐하시리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18장

* 오늘의 말씀: 스바냐 1-3장

묵상할 본문 | 슘 3:14-20

¹⁴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¹⁵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¹⁶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¹⁷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¹⁸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¹⁹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²⁰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묵상 가이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모두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원수를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큰 기쁨인데 스바냐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벌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격정과 근심이 없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기쁨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2. 희망의 복지재단이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선교사님과 함께 하사 복음의 기쁨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본 서신은 온 세상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시해 주는 신약 성경 유일의 예언서입니다. 또한 본 서신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화롭고 복된 내세를 보여주는 은혜와 소망의 책인 동시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던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멸망과 심판의 책이기도 합니다.

1. 저자와 연대

헬라이어 성경에서 본서신은 '아포칼립시스 이오안누'로 불리는데, '요한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며 A.D. 90-96년 사이에 기록하였습니다. 에게 해에 있는 밧도 섬에서 기록하였으며,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현재 터키 지방) 향한 서신입니다.

2. 목적과 배경



※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무대
사도 요한이 밧도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적어 보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역이 본 서신의 주요 무대

※ 요한계시록의 핵심어는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입니다. 본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몇몇의 숫자가 중요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두드러지는데, 일곱 편지,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진노의 일곱 대접, 새로운 일곱 일 등입니다.

3. 내용과 구조

1) 서론 : 선견자 요한에게 주신 위탁(1:1-20)

2)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말 시대의 대파노라마와 교회의 승리(2:1-22:5)

- (1)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2:1-3:22)
- (2) 하늘 보좌 환상(4:1-5:14)
- (3) 일곱 인, 일곱 나팔(6:1-11:19)
- (4) 그리스도와 용과의 싸움(12:1-14:20)
- (5) 일곱 대접의 준비, 진노의 일곱 대접(15:1-16:21)
- (6) 바벨론 심판(17:1-19:21)
- (7) 최종 완성(20:1-22:5)

3) 결론 : (22:6-21) : 본서 전체의 결론과 보증

※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수많은 상징적 숫자와 상징성을 지닌 색, 상징성을 띤 동물 등 본서신만큼 상징과 비유, 화려한 환상으로 가득 찬 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영광,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파멸과 종말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이 주어졌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도우고 살피시는 위로와 격려, 넘치는 은혜와 소망이 본서신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징적 숫자와 상징성을 지닌 색, 상징성을 띤 동물 등 본서신만큼 상징과 비유, 화려한 환상으로 가득 찬 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영광,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파멸과 종말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이 주어졌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도우고 살피시는 위로와 격려, 넘치는 은혜와 소망이 본서신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2장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묵상할 본문 1 계 1:1-8

¹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²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³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⁴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⁵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⁶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⁷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⁸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묵상 가이드

요한은 말씀을 전하다가 밧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립되고, 고난이 찾아오는 각자의 밧모 섬이 있습니다. 각자의 밧모 섬은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신앙적, 물질적, 관계적 어려움이 우리를 고립시켜 환난 가운데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밧모 섬이라는 고립된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어 그분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그를 통해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역을 받았습니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요한처럼 우리도 각자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삶의 마지막 순간 유배된 밧모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 밧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에게도 함께 하시고 흠어져 있는 일곱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감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2. 복지재단 봉사센터와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3.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사 깨어지고 상처 받은 자들이 복음으로 위로 받고 예수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36장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4장

묵상할 본문 | 겔 39:25-29

⁷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⁸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⁹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¹⁰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¹¹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¹²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¹³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묵상 가이드

A.D17년에 대규모의 지진이 빌라델비아를 강타하였습니다. 지진으로 도시가 훼손되었고 시민들은 계속되는 여진에 불안감을 느끼고 하나, 둘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급격히 쇠락해져갔고 이는 경제적 위기로 연결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았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영향력 또한 작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양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인 안정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근거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을 칭찬하실지 생각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1-12와 함께 하사 모이기에 힘쓰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 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3. 교회 안의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누가 능히 서리요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4장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5-6장

묵상할 본문 | 계 6:12-17

¹²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¹³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¹⁴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¹⁵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¹⁶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¹⁷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묵상 가이드

다섯번의 인을 떼 때는 일부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여섯 번째 인을 떼 때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지진이 나고 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처럼 이들도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도 없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여섯째 인을 떼 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하더라도 이에 대해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여러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 M-12와 함께 하사 믿음으로 동역하며 기도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소서.
3.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70장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7-8장

묵상할 본문 1 계 7:1-4

¹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²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³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⁴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묵상 가이드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4절에서는 십사만 사천이라는 숫자로 설명하는데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3절에 인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소유였고 그래서 종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소서.
2. 남선교회연합회와 함께 하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소서.
3.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찬 양

찬송가 254장

말 씬

예레미야 26장 2-3절

나 누 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 그들이 듣고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혹시'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질 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합니까?

기 도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잘못들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 보세요. 한 주간 종이에 적은 죄를 회개하며 돌이킨 후 종이를 태워 버리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세요.

암 송 구 절

예레미야 26:3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1장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9-10장

묵상할 본문 | 계 10:8-11

⁸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⁹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¹⁰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¹¹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묵상 가이드

요한은 여섯 째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 출현한 천사에 대한 환상을 기록합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을 삼켜야 하고 책의 내용을 교회에 전해야 하며,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에 순종하여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러자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씁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장면(겔2:8-3:3)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선포 사역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인데, 선지자는 독초같이 쓴 심판의 메시지라도 전파해야 할 의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 독초와 같은 쓴 경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탄을 받으며 위협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능력과 용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언자들입니다. 주의 뜻을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을 바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나에게 달게 다가오는 말씀만을 취하고 어려운 사명에 대한 사역은 피하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고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여전도회연합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3. 위정자들에게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의로 다스리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의 승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10장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12장

묵상할 본문 I 계 12:13-17

¹³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¹⁴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낮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¹⁵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¹⁶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¹⁷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묵상 가이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사단은 결코 자기에게 속한 대상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핍박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은 만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5:10-12)

본문에서는 용 즉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며 갖은 술책과 계교를 통하여 성도와 교회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된 고난과 핍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2. 감사위원회의 사역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잘 살피고, 재정사용을 감사하는 일에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3. 고척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지의 모든 사역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소서..

삶과 죽음

-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73장
-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14장

묵상할 본문 | 계 14:13

¹³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묵상 가이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생존에 대한 염려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들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물질과 명예의 혜택들이 마치 축복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명예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초조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저 공포의 순간이고 가장 저주 받은 순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마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과 명예가 참된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않습니까?

*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결단합니다.

오늘의 기도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향한 천국 소망을 품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2. 노회와 총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3. 고척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며 이 지역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2장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17장

묵상할 본문 | 계 17:16-18

¹⁶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¹⁷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¹⁸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묵상 가이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음녀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바로 음녀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과 그의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어떠한 상황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세력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더욱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깨닫고 인내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사단의 세력이 세상의 것들로 미혹하거나 넘어뜨리려 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느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여 시대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2.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이 땅에 다시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3. 고척교회를 통하여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취약 계층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36장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19장

묵상할 본문 | 계 19:6-8

⁶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⁷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⁸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다 하더라

묵상 가이드

유대인의 혼인풍습에 의하면 남녀가 정혼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혼인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 기간 중이라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지내고 난 뒤 마침내 혼인 예식을 올리는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영적으로 약혼한 신부가 된 우리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기한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일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혼인 잔치를 기다리며 신랑을 맞는 신부의 기다림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날들이기에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타락한 신부로 살아간다면 가장 슬퍼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더 탐하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2. 고척교회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3.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하루 속히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지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마라타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9장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22장

묵상할 본문 | 계 22:20-21

²⁰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²¹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묵상 가이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부활의 종교이자 재림의 종교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요한은 즉각 마라타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성찬 예식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기도문으로서 성도들간의 인사말로도 흔히 사용된 아람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최후의 말씀이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또한 이는 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어느 때에 오실지 정확한 날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언제 치러질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기름을 들고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들이 지금 이 순간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적용과 물음

*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삶의 중심에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2. 고교회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어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3. 지역과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화 되어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찬 양

찬송가 488장

말 씬

전도서 3장 11절

나 누 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시63:1)과 같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갑시다.

질 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한 때는 언제입니까?

기 도

우리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유튜브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을 찾아 가족이 함께 듣고 불러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서로 고백해보세요.

암 송 구 절

전도서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교회소식

12월

교회

- 월삭새벽기도회 | 1일(목)
- 부천아가페합창단 초청 찬양예배 | 4일(주일)
- M-12/ L-12 하반기 종강 및 자유포럼 시작 | 7일(수)
- 향존직은퇴예식 | 11일(주일)
- 성탄절예배 유아세례식 | 25일(주일)
- 송구영신예배 | 31일(토)

교회학교

- 교회학교진급식 성탄축하발표회 | 18일(수)

예배시간 안내

G O C H E O K . P R E S B Y T E R I A N . C H U R C 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6:00	은혜대예배당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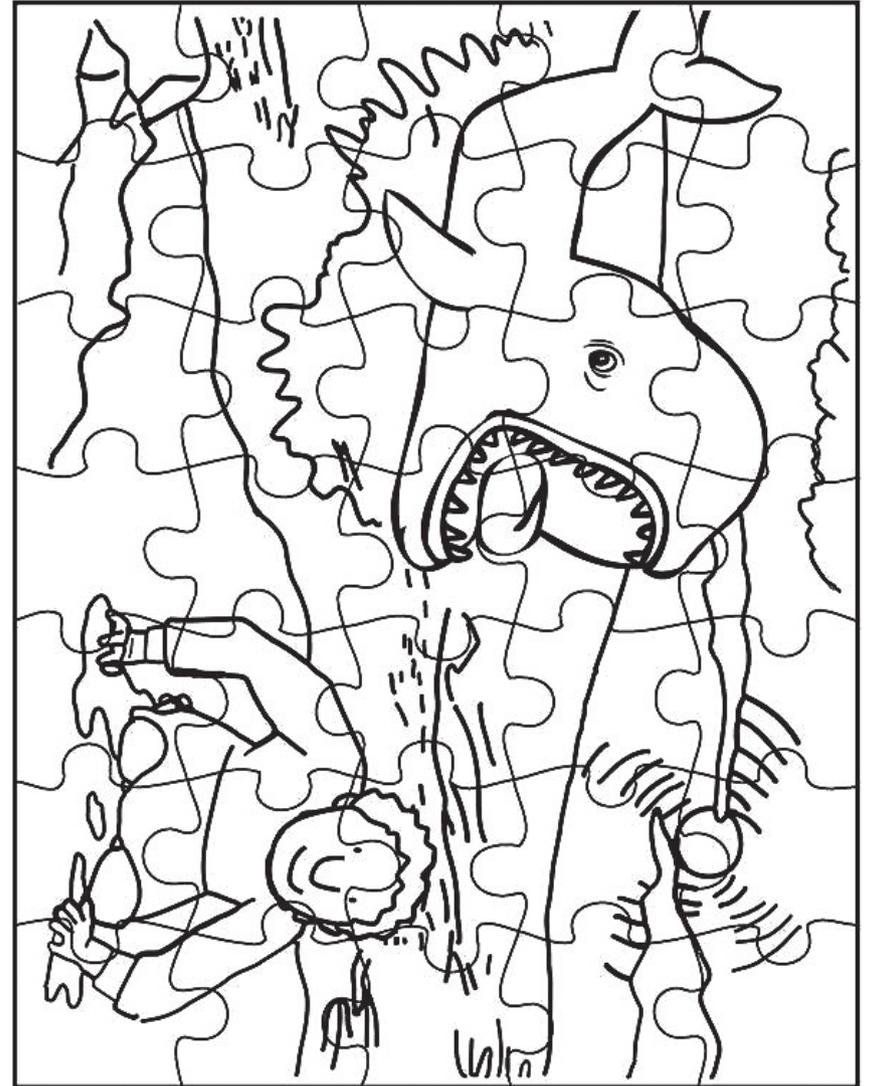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요나와 큰 물고기

- 요나 2:1-10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림을 색칠하고 나만의 퍼즐을 만들어서 맞춰보세요.



전도서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레미야 26:3

그들이 듣고 후시 가가가 그 아람의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 하였으며

내가 그들의 아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였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태복음 18: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유대라도
있는 것은 유대에게 계시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나니라

마태복음 9: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러야 쓸 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6: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